

뉴스위크 번역을 통한 식민 담론의 전복

최 성 희
(고려대)

1. 서론

영어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세계 지배를 통해 제국주의적 언어가 되었고,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침윤된 국제어가 되었다. 영어로 쓰인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 미국 중심 이데올로기는 한국에 수직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번역은 두 나라 사이의 지배와 종속관계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정치적인 도정이자 “식민 담론의 통로”(Robinson 24)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뉴스 담화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번역과정에는 두 나라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존재하며, 이런 긴장은 번역가의 어휘 선택, 문장이나 문맥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원천 텍스트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정치 관점에 따라 상당히 변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뉴스위크 국제판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 중심적 식민

담론의 변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발간된 뉴스위크 국제판(ST)과 뉴스위크 한국판(TT)에 실린 북한 핵 위기에 관련된 기사를 다룬다. 이 기사들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의 핵 위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이고, 그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근대 이후 어느 때보다도 상충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독자적인 입장을 지켰으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반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불량국가’(rogue state)로 명명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반 테러주의 정책의 확장이었다.¹⁾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한 두 나라의 상이한 시각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 전쟁 때 영토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양분된 후,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조종될 수 있는 나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은 자본, 군사적 개입, 문화적 헤게모니 등의 신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한국에 개입하였다. 사이드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얽혀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후기 식민주의적 양상”으로 보았다(Said 1993: 8).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더욱 독립적인 외교책을 유지하고 자위적인 군사력을 보강하였다. 게다가, 2004년 당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미국을 북한보다 더 한국에 위협적인 나라”로 간주하고 있었다(Flake 93).

뉴스위크 국제판에서 미국은 헤게모니적 권력을 가진 위치로 나타난다.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그들 편’their side과 ‘우리 편’our side으로 이분법적인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이 속에서 미국은 우월한 “자아”the Self로, 한국은 열등한 “타자”the Other라는 식민주의적 존재로 재현된다.

미국적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식민주의적 재현 양식인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런데 본 연구는 뉴스위크 한국판이 원문의 미국 중심적 식민 담론을 그대로 유입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뉴스위크 한국판의 편집장은, 뉴스위크 번역과정이 여러 사람이 체계적으로 함께 작업하

1)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 위기를 다중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풀어가려 하였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악의 축”인 국가에 협조한다고 생각했다(Yoo 20). 미국은 한국의 정책을 “일종의 배신행위”라 간주했다(Flake 87).

는 번역, 개작, 편집 등의 여러 단계로 구조화 되어있음을 설명하면서, 제작 과정 중에 번역가들의 해석과 변형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²⁾ 그러므로, 뉴스위크 국제판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어 번역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텍스트의 식민주의에 관련된 언어구조를 어휘적, 문법적,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ST의 식민 이데올로기가 TT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론적 바탕으로는 마르크시즘적 이데올로기 이론과 후기 식민주의 번역이론을 도입하고, 언어적 분석을 위하여 비평적 담화 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전반적인 틀로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 체계적 기능 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을 적용하겠다.

이제까지 비평적 담화분석과 체계적 기능 문법을 기초로, 뉴스 담화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제도 번역 측면에서의 접근(강지혜 2004, 2007, 2008a, 2008b)이거나, 언어적 측면에서의 탐색(이창수 2006, 2012; S. B. Lee 2008; 이주리에 2011, 2012)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후기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뉴스위크 국제판에 내재된 식민 담론을 탐색하고 그것이 한국어 번역판에서 해체되고 전복되는 과정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의 자국화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 번역학 이론가들은 번역을 원문이 조작되거나 다시 쓰이는 과정으로 본다. 베누티Venuti(1998), 르페브르Lefevere(1992)를 비롯한 이론가들, 특히 주로 후기 식민주의 학자들은(Robinson 1997; Niranjana 1992; Cheyfitz 1997; Bhabha 1994) 번역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의 관계에 천착해 왔다. 그들은 번역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 조건 아래에서 번역을 한다는 사실에

2) 2009년 11월 29일에 행해진 인터뷰에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은 번역과정에서 “잘 못 알려진 정보는 삭제되고 새롭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첨가 시킨다”고 하면서 뉴스위크 국제판의 내용이 번역 과정에서 자국화domestication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목한다. 번역은 지배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조작 과정이자 목표 사회의 역사가 깊게 삼투된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베누티는, 번역이란 상이한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담고 “서로 경쟁하는 언어들 사이로 개입하는 행위”라 언급한다(1998: 30). 르페브르도 “번역의 역사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권력을 행사하는 역사이다”라고 말한다(1992: vii). 그는 번역을 다시쓰기 과정으로 규정 하면서, 번역의 자국화domestication를 옹호한다. 여기에서 자국화는 “의도성, 사회-문화적, 그리고 사회-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원천 텍스트로부터 급진적으로 벗어나”(Hatim and Mason 153) 원천 텍스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천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도 목표 문화에서 변하게 된다.

하지만 베누티는 자국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자국화란 “외국 텍스트를 목표 언어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국민 중심적인 환원 과정”이라 보았다(1995: 20). 이런 방식으로, 주요 문화의 권력은 다른 소수 문화에 산포된다. 베누티는 소수 문화의 글이 주요 문화의 글로 번역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그는 특히 미국 중심적인 번역이 “지난 300년 동안 원천 텍스트 작가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지배문화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미명하에 외국의 문화적인 가치를 일반화하거나 삭제했다”고 본다(Hatim and Mason 145).

그러나 모든 자국화 번역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тім과 메이슨은 “만일 자국화 전략이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언어에서 소수의 위치에 있는 목표 언어로 번역하는데 적용된다면, 지배 문화는 소수 문화에 흡수될 수 없을 것이고, 지배 언어로 인해 소수 언어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ibid. 145-146)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번역 행위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주요문화인 미국 문화의 지배 담론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때 자국화 전략은 주요 열쇠가 된다.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에 앞서, 권력 관계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번역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란, 인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지식, 믿음, 가치 체계로 여겨져 왔다(Munday 2007; van Dijk 1998; Hatim and Mason 1997).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지배와 착취 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특정한 방법”으로 본다(Wodak 10). 이는 이데올로기를 계급 지배와 연결해서 본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는 이데올로기란 현실이 왜곡된 재현물이며, 일종의 “허위 의식”false consciousness이라 규정하였다(Thompson 1984: 81). 그들은 이데올로기란 사회의 엘리트와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념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증대하기 위해 현실을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규정한다(Richardson 33).

그람시Gramsci와 알튀세Althusser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한다. 그들은 대중매체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은폐하거나(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람시는 뉴스 담화가 사회의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도록 조작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헤게모니란 지배 계급의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의 “동의에 의한 지배”를 하는 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헤게모니는 “본질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Richardson 35).

그람시를 따라 알튀세도 주장하기를, 미디어는 사람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내면서 권력자들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알튀세는 이데올로기를 “허상”으로 간주하고(Althusser 162), 사람들이 “호명”interpellation과 “주체화”subject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다고 본다(Callinicos 65).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이데올로기 속 존재로써 호명되어서 지배 권력이 원하는 존재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이 된다. 알튀세의 이론은 뉴스위크 국제판이라는 대중매체 담화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지배와 종속이라는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호명되고 주체화되는’ 것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은 뉴스위크 국제판에서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한 재현이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용인되며, 동시에 어떻게 번역본이 원천 텍스트에 나타나는 헤게모니를 의문시하고 전복하는지를 탐색하는데 효과적이다. 위에 언급한 마르크스즘적 이데올로기는 후기 식민주의적 번역학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2.2. 후기 식민주의 번역

후기 식민주의 번역학 이론가들의 화두는 번역 행위에 존재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비대칭적 재현 양식이다. 그들은 재현과 재현 양식이 피 식민지인을 식민통치에 순종하도록 하는 식민 권력의 다양한 방식을 연구한다(Mcleod 35). 로빈슨Robinson(1997), 니란자나Niranjana(1992), 체이핏츠Cheyfitz(1997), 그리고 바바Bhabha(1994)는 알튀세의 이론을 도입한다. 특히 그들은 제국주의 담론 속에 나타나는 ‘자아-타자 이분법’내에서 국가적 정체성이 재현되는 문제에 천착한다. 식민 담론 속에서, 식민주의자들은 소수 문화의 사람들을 “타자화”한다(Niranjana 11; Robinson 23). 이 과정에서 식민 주체는 우월성을 내재화하여, 자신을 “이성적”, “문명인” 그리고 “우월한 사람”으로 ‘호명’한다. 반면, 피 식민자는 “비이성적”, “야만인”, 그리고 “열등한 사람”으로 그려진다(Robinson 23). 이때 번역은 지배 문화에 봉사하면서 피 식민주의자들을 헤게모니 적으로 재현하는 식민 지배의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바바(1994), 니란자나(1992), 그리고 베누티(1998)는 번역이 이러한 헤게모니적 재현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 바바(1994)는 문화란 ‘주체/ 타자’의 관계, 다시 말해 제 1세계와 제 3세계, 혹은 주인과 노예 식으로 단순히 이분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니란자나(1992)는 번역과 번역비평은, 당연한 것으로 재현된 현실을 의문시하면서 식민 담론을 거부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베누티(1998)는 번역이 식민주의 담론을 매우 효율적으로 긴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착 문화가 기존의 정치적인 위계를 재인식하고 식민주의가 의존하는 헤게모니적인 가치와 식민주의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전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후기 식민주의 번역 이론가들은 현재에도 미국을 주축으로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식민관계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후기 식민주의를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제국주의적 진행에 영향을 받은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의미로 파악한다(Ashcroft and Griffith 2). 바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계속되는 식민적 현재”로 규정하여, 현재에도 과거 식민주의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한다(Bhabha 128). 니란자나 역시 현재의 제 3세계 상황을 ‘신 식민주의’로 명명하고, 식민주의의 권력관계는 계속 재생산되

고 있다고 본다(1992: 8). 더 나아가 체이피츠는 미국식의 전 지구화가 경제적 이고 문화적인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써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체이피츠는 “미국 중심적 제국주의는 서구 이외의 세계를 타자의 형태로 유리화 한다”고 본다(1997: xiv).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명백하게 두 나라를 위계화 하는 동종화(homogenization)를 생산해낸다”(ibid. 5)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제국주의적인 담론이 미국을 “문명화된 나라”로 재현하는 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야만인이나 원시인, 혹은 공산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ibid. 3).

본 연구는 후기 식민주의 번역 비평가들의 이론에 따라, 번역을 “헤게모니적인 언어나 문화의 지배를 거부하는데 유용한...언어적인 혁신”으로 보고(Venuti 1998: 187),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다면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살핀다.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연관관계 분석을 위해 페어클러프와 할리데이의 비평적 언어 접근법을 사용한다.

2.3. 이데올로기와 언어

2.3.1. 할리데이의 체계적 기능 문법

체계적 기능 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은 비평적 언어학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비평적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언어의 기능은 “실제 상황과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Thompson 2004: 8-9). 비평적 언어 분석의 선구자인 펄스Firth는 ‘상황의 전후 관계’가 언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보았다. 펄스의 이론을 기초로 할리데이Halliday는 언어는 상황에 따라 “서로 연관된 선택의 연결망”속에서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구성된 의미 체계라 규정한다(Halliday 1994: xiv). 그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을 세 가지 측면, 즉 field(담화내용), mode(담화 참여자) 그리고 tenor(담화 방식)의 복합체로 보았다. 할리데이의 이론에 의하면, field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tenor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mode는 그 상황 속에서 언어가 어떠한 유형의 텍스트로 나타는지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경험적 의미experiential

meaning, 대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그리고 문맥적 의미textual meaning로 연결된다. 그리고 각 의미는 어휘-문법적lexico-grammar인 차원에서 언어 속에 내재한다. 경험적인 의미는 언어가 사람들의 행동과 경험을 사건의 인과 관계나 상황에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적 의미는 언어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문맥적 의미는 경험적 의미와 대인적 의미가 일관적인 전체로써 텍스트 안에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Butt et al. 5-6).

본 연구는 경험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룬다. 경험적 의미는 어휘와 동사성transitivity을 포함한다. 어휘 속에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Fowler 11). 그러므로 체계기능문법을 통해 어휘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할리데이는 절clause을 경험적 의미를 언어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보고, 절의 구조를 참여자participant, 프로세스process, 상황circumstance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참여자는 사람이나, 장소, 혹은 물질로 나타나는 명사 그룹을 말한다. 프로세스는 사건의 발생이나 관계를 재현하는 동사그룹이다. 상황은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나 전치사 그룹을 말한다.

할리데이는 동사구를 사람의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문장 요소로 보았다. 그는 경험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들을 “일련의 프로세스 타입”으로 구분하였다(1994: 106). 그는 이러한 기능을 동사성³⁾transitivity이라 설명하고, “동사성은 문장 속의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그 프로세스와 연관된 참여자와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1994: 107). 어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는 동사성도 역시 저자나 화자의 주관적 생각을 선택적으로 기호화한 것이라 보았다.

할리데이는 동사성 체계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물질적 프로세스material process, 정신적 프로세스mental process, 구두적 프로세스verbal process, 관계적 프로세스relational process, 동작적 프로세스behavioural process, 그리고 존재적 프로세스existential process로 구분한다⁴⁾(ibid. 143).

3) 이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이창수(2006)는 기존의 자동사와 구분되는 타동사의 개념과 구분을 두기 위해서 이 용어를 ‘타동성’이 아닌 ‘동사성’으로 번역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의 번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동사성뿐 아니라 동사성 체계와 관련된 용어의 우리말 표기도 이창수의 번역을 사용한다.

4) 여기서 물질적 프로세스는 행위를 재현하고, 행위자Actor와 목표 Goal를 주된 참여자

문맥적 의미는 “인간의 경험적 의미와 대인적인 의미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것이다(Butt et al. 134). 하나의 문장은 이끔부theme과 딸림부rheme으로 이루어진다.⁵⁾ 이끔부는 문장 메시지의 “출발점이며,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Baker 121). 반면에, 딸림부는 해당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이다. 저자나 화자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이끔부 자리에 뒀으로써 전경화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의 이끔부를 분석하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Fairclough 1992: 174). 또한 이끔부는 일반 이끔부unmarked theme 와 특별 이끔부marked theme로 구분된다⁶⁾. 일반 이끔부는 문장의 주어와 겹쳐지는 이끔부인 반면, 특별 이끔부는 주어 이외의 문장 요소들이 문장의 이끔부가 되는 경우이다. 특별 이끔부로 구성된 문장은 저자의 의도성이 내재된다(Butt et al. 139). 할리데이의 이론은 페어클로프에 이르러서 더욱 정교하게 된다.

2.3.2. 비평적 담화분석

본 연구에서 비평적 담화분석이 이론적 배경으로 쓰인 이유는 이 분석 방법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적인 장치들을 식별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비평적 언어 분석가들은 언어란 매우 조작적이어서,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기도 한다”(Fairclough 1989: 1)고 주장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오랜 기

로 동반한다. 정신적 프로세스는 심리적 경험이나 의식을 재현하며, 감지자Senser와 현상Phenomenon이 주된 참여자로 나타난다. 구두적 프로세스는 말하기를 재현하며 화자Sayer, 표적Target, 청자Receiver를 주된 참여자로 동반한다. 그리고 관계적 프로세스는 상태나 존재를 재현하며, 귀속성Attribute과 귀속자Carrier 혹은 식별자Identifier와 피 식별자Identified가 주된 참여자로 문장에서 함께 나타난다. 동작적 프로세스는 심리적이거나 생리적인 동작을 나타내며, 행위자Behaviour가 주된 참여자로 나온다. 그리고 존재 프로세스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구로, 존재자Existent가 참여자로 나타나는데, 영어에서 “There+be”구문이 해당된다 (Halliday 106-144).

5) 김미라(2012)는 theme과 rheme의 개념을 우리말로 각각 ‘이끔부’와 ‘딸림부’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번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6) 김미라(2007)는 전자를 일반 이끔부, 후자를 특별 이끔부라 번역한다.

간 용인되어온 담화 속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들추어내는데 주력한다. 특히 공적인 담론에는 불평등한 양상들이 언어 속에 조작되어 있다고 보고, 주로 “신문의 잘못된 재현이나 차별”을 분석하는데 집중한다(Fairclough 1989: 1).

대표 이론가인 페어클러프 Fairclough는 언어에 내재된 권력 관계를 탐색하였다. 알튀세와 그람시의 마르크시즘을 기초로, 그는 권력이 “사람들의 동의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데올로기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지배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 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힌다(1995: 14).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헤게모니를 단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는 비평적 담론 분석의 목적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비평적 언어 인식”을 촉발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ibid.: 233). 그는 특히 “대중매체 언어를 권력과 투쟁의 장소”로 인식한다(Wodak 6).

페어클러프는 할리데이의 틀을 따라서 권력관계를 재현하는 언어적 특징으로, 경험적 가치 experiential value, 관계적 가치 relational value, 그리고 표현적 가치 expressive value를 이론화한다(1989: 112).⁷⁾ 페어클러프는 이를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페어클러프와 할리데이의 이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식민 담론과 그 번역 과정을 탐색하는데 효과적 연구 방법이 된다. 체계적 기능문법 이론은 비평적 담화분석을 통해 제기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불평등한 사안들을 실제 언어 상황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데올로기적인 권력관계가 ST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다시 언어적인 조작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평적 담화 분석은 두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담화를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 측면에서 탐색하는데 적용되었고, 할리데이의 방법론은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언어적인 번역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7) 경험적 가치는 “텍스트 제작자가 경험한 자연적이지도 사회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을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관계적 가치는 “텍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관계를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표현적 가치는 “현실의 부분에 대한 제작자의 평가를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Fairclough 1989: 112).

3. 데이터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기사는 8편의 뉴스위크 국제판과 그 번역본인 뉴스위크 한국판이다. 뉴스위크 국제판은 미국 주요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와 제휴하여 출간되었으며, 한국판은 한국의 주요 신문사인 중앙일보 사에서 출간되었다. 본 연구는 뉴스위크 국제판을 ST로 하고, 한국판을 TT로 한다. 선택된 기사는 모두 북한 정치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기사는 www.newsweek.com 와 <http://magazine.joins.com/newsweek/> 에서 구하였다 (부록참조). 분석 대상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ST (뉴스위크 국제판)	TT (뉴스위크 한국판)
A Failure To Communicate (12 Jan. 2004)	돌파구 찾지 못하는 북핵 2차 6자 회담 (2004년 1월 14일자)
Nuclear Offense (21 Feb. 2005)	미국은 북한핵 해법을 알고있나 (2005년 2월 23일자)
Is Three A Crowd? (20 Jun. 2005)	한국은 미국에 등 돌리나 (2005년 6월 22일자)
Going Slow (29 Aug. 2005)	6자 회담 공공이 따로 있다 (2005년 8월 31일자)
Pocketbook Policing (10 Apr. 2006)	북 돈줄끊는 미국의 진짜 노림수 (2006년 4월 12일자)
A Nuclear Threat (16 Oct. 2006)	김정일의 마지막 도박 (2006년 10월 18일자)
South Korea's Resistance: A 'Parallel Universe'(30 Oct. 2006)	한국과 미국의 시각은 '평행선 달리기' (2006년 11월 2일자)
The North Wind Blows Again (17 Aug. 2007)	남북 정상회담 북핵 해결 도움 될까 (2007년 8월 22일자)

본 연구에서는 각 ST와 TT의 모든 문장이 비교 분석되었다. 부록으로 첨부된 기사에서 일부는 지면상의 문제로 인하여 생략되고 말줄임표[...]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페어클러프와 할리데이의 언어이론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ST와 TT에 나타나는 한국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재현 문제를 페어클러프의 3가지

언어 특질 분류 방법에 따라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인 측면에서 살핀다. 특히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할리데이의 이론을 적용하여 동사성 transitivity을 중심으로 보았고, 문맥적인 측면에서는 주제화thematization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4. 분석과 논의

4.1. 어휘적 측면

어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현실을 재현한다(Fowler 11). 텍스트 속의 어떤 어휘가 선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어휘에 내재된 “저자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알 수 있다(Fairclough 1989: 112-113). 다음 ST의 어휘들은 미국의 입장을 재현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을 운용한다고 추측되는 외국 은행들에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마카오 은행을 비롯한 외국 은행들이 북한 계좌를 동결하게 해서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가혹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Flake 88).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다음 두 예문의 어휘에 반영되고 있다.

ST1: Some experts say that the real target of America’s new financial crackdown isn’t Pyongyang but Beijing, which is Kim Jong Il’s most important patron.(2006년 4월 10일자)

TT1: 미국의 최근 금융 탄압의 진짜 표적은 평양이 아니라. 김정일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인 베이징이라는 분석도 있다.

ST2: “his regime might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the U.S. crackdown on his financial dealings.”(2006년 4월10일자)

TT2: “미국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너무 심하게 탄압해 자신의 정부가 붕괴될지 모른다.”

ST3: “The U.S. continues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carefully

assess the risk of holding any North Korea-related accounts.(2006년 10월16일자)

TT3: 미국은 계속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계좌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중용한다.

식민 담론 내에서 지배자들은 “입법 이론에 의존하여” 자신의 권력을 논리화한다(Said 1978: 491). 그들은 스스로를 “행정당국, 관료들... 등으로 호명한다”(Robinson 24). 위 ST의 어휘들은 미국이 공정한 ‘행정당국 혹은 관료’처럼,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포한다. ST1의 “단속”(crackdown)이라는 어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적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어휘 선택을 통해 ST1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적법하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상을 준다. 더욱이 이 어휘는 ST2에서 연속으로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미국을 우월한 입장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⁸⁾ 또한 ST3는 미국이 외국의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ST3의 “장려하다”(encourage)라는 어휘는 미국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미국이 전 세계 은행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임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TT에서 ST의 식민 담론은 무화된다. ST1과 ST2의 “단속”이라는 어휘는 TT1과 TT2에서 결백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탄압”(oppression)으로 번역된다. 이 어휘는 오히려 미국의 정책을 불공정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ST3에서의 “장려하다”라는 어휘는 TT3에서 “중용”으로 번역되어, 미국의 금융 제재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ST에서 나타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선을 행하는 ‘우월한 식민주의자’로서의 미국의 재현을 번역을 통해 해체된다.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 세계은행들을 거침없이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초강대국으로 재현된다.

8) 패어클러프가 주장하듯이, 현실에 대한 저자의 편향성은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1989:115). 그러므로 “단속”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는 것은 ST의 저자가 미국이 다른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언어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 텍스트들은 한국어 원문과 번역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ST4: ... South Koreans have often bridled at their junior place in the alliance... (2005년 6월 20일자)

TT4: 한국은 한·미 동맹에서 차지하는 열등한 위치에 종종 화를 낸다.

ST5: South Korea's resistance (1/ 30 Oct. 2006년 10월 30일자)

TT5: 한국 --

ST6: Blue House progressive challenges White House hawks. (2006년 10월 30일자)

TT6: 청와대 안보분야 진보 인사들, 백악관 네오콘 매파와 정반대 세계관

식민 담론 속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을 “야만적인 타자”로 호명하는 반면 자신은 문명화된 자아로 규명하여서,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다 (Robinson 24). 위 ST에서 한국은 이러한 식민주의적 언어 책략 속에 야만적이고 열등한 타자로 재현된다. ST4에서 “bridle”는 한국인들이 말처럼 길들여져야 하는 ‘야만적인 타자’로써 호명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어휘는 “거세게 화를 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의 머리를 매는 굴레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ST5와 ST6에서는 한국인의 행동이 “저항하다”(resistance)와 “도전하다”(challenge)라는 어휘로 묘사되는데, 이 어휘들은 열등한 입장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권위 있는 상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어휘를 통해 ST는 한국인들과 한국 정치인들을 열등한 타자의 위치로 격하하는 한편, 미국 정치인들을 은연중 권위 있는 위치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TT는 원문의 어휘들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여서 ST에 있던 식민주의적 위계를 해체한다. TT4은 “bridle”을 “화를 내다”로 옮겨서 ST의 한국의 열등한 이미지를 없앴다. 또한 TT5에서는 “resistance”을 삭제하여서 한국을 열등한 타자로서 규정하였던 ST의 식민 담론 구조를 해체한다. 더 나아가 TT6에서는 “challenge”를 “정반대 세계관”이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언어로 변용하여서 원문에서 암시되었던 미국과 한국의 위계관계를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ST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을 재현하는 예에서 두드러진다.

ST7: Washington basically expected the Koreans to take note of the idea and nod their approval. (2005년 6월 20일자)

TT7: 미국은 한국정부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했다

ST8: Surely it can't be a bad thing fo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to get together for a chat. (2007년 8월 17일)

TT8: 남북한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일이 절대로 나쁘지는 않다.

ST9: Political junkies coined the phrase "North Wind"... (2007년 8월 17일자)

TT9: 정치 논평가들이... '북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후기 식민주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식민 담론에서 지배자는 피 지배자를 침묵하는 타자로 상정한다(Moore-Gilbert 392). 또한 지배자는 “이성적인 어른”으로 재현되는 반면, 피 지배자는 지도가 필요한 부족하고 미숙한 “어린 아이”(Robinson 24, Niranjana 33)로 재현된다. 위 ST는 한국 정부를 미국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복종적이고 수동적이며 부족하고 미성숙한 타자로 상정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ST7에서 한국 정부는 침묵한 채 미국 정부의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수긍하는 타자로 재현된다. ST7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은 마치 선생의 지시에 “주목하며”(take note of), “고개를 끄덕이는”(nod) 입장으로 그려진다. 또한 ST8는 남북 정상회담을 “수다”(chat)라 폄하함으로써 회담을 하찮은 모임으로 평가 절하한다. 동시에 “chat”이라는 어휘는 한국의 대통령의 말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한편 ST9는 한국의 정치인들을 한 가지 일에만 병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자, 마약 중독자라는 뜻도 포함하는 “junkies”라는 어휘로 나타난다. 이 어휘로 한국 정치 평론가들은 멸시할 만한 타자로 자리매김 된다.

그렇지만 번역과정에서 이러한 어휘들은 상당히 변형된다. TT7은 “take note of”와 “nod”라는 ST의 어휘들을 삭제함으로써, ST에 내재한 위계담론을 무화한다. 또한 TT8 는 “chat”을 “대화”로 번역해서 ST2의 부정적인 평가를 희석한다. 또 “junkies”는 TT9에서 “논평가”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의 어휘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ST에서 재현되었던 한국 정치인들의

열등한 이미지는 사라진다.

위와 같은 변형을 통해서, TT는 식민 담론이 부여한 종속성을 거부한다. “식민 상황에서 피 지배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치스러워 하도록” 훈육되지 만(Niranjana 33), 오히려 TT는 ST 속의 헤게모니적인 담론구조를 손상시키고 해체한다. 이런 양상은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4.2. 문법적 측면

ST와 TT에 재현되는 한국과 미국의 힘의 역학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동사성transitivity에 연관된 동사구, 즉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에 동반된 참여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Fairclough 1989: 122) 때문에 동사성 분석은 화자나 필자의 관점, 즉 이데올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분석 대상인 행위자가 연관된 프로세스나 참여자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사회 행위자가 물질, 행위, 구두 프로세스의 주체로 표현 된 경우에는 능동적인 강자로, 정신이나 관계 프로세스의 참여자로 표현된 경우에는 수동적인 약자로 해석될 수 있다”(이창수 2012: 262). 이 장에서는 미국의 식민 담론을 구성하는 문법 구문을 분석하고 그것이 번역문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살펴본다.

다음 동사성 구조는 북한의 핵 문제 6자 회담에 관련된 미국 정치인들의 행동을 표현한다.

ST10: Administration Hawks (Actor) raise (Material Process) the bar (Goal) in talks over North Korean. (Circumstance) (2004년 1월 12 일자)

TT10: 6개국간 견해차 해소보다 차기 일정에만 관심. 미 행정부 내 알력도 걸림돌. (Participant)

ST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권력의 자리에 위치한다. ST10에서 미 행정부의 강경론자들 “administration Hawks”을 행위자 Actor로 두고 물질 프로세스인 “raise”를 연결시키는 문장구조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강력한 참여자로 구조화하며, 미국이 6자 회담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참여국들보다 우월하고 강력한 권위 주체임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메타포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내포한다”(Fairclough 1989: 118). ST에서 상황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의 “raise the bar”라는 메타포는 장대높이뛰기와 같은 스포츠를 암시하는데, 이 메타포는 마치 미국 행정부의 강경론자들이 경기에서 막대 수위를 조정하는 심판관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메타포는 미국에게 6자 회담이 마치 스포츠와 같은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ST는 미국이 6자 회담에 관여하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우월한 주체임을 재현한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재현 구조는 ST가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대체됨으로써 와해된다. TT10은 명사구화 nominalization되는데, 명사구화란 “문장을 단일한 구조로 함축시키는 방법”이다(Halliday 41). 이때 절의 모든 요소들은 참여자(participant)로 재구조화되면서, 행위자와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위성은 가려지거나 삭제된다(Butt et al. 74). TT에는 미국이라는 행위자가 삭제되며,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도 삭제된다. 그 대신 TT는 6자 회담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가들의 무관심에 대해 기술하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의 알력이라는 내용을 첨가한다. 그럼으로써 ST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긍정적인 재현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꾼다.

다음 예에는 미국의 부정적인 행동이 두 텍스트에서 서로 다르게 재현된다.

ST11: The 2006 budget(Actor) calls for(Verbal Process)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new ‘bunkerbusting’ nukes of its own (Goal). (2005년 2월 21일자)

TT11: 미국은 (Actor) 막대한 예산을 들여(Circumstance) 지하핵 관통탄을 (Goal) 개발할...(Material Process)

ST12 a: This (Carrier) is (Relational Process) an area where people obviously think that you have the opportunity for revitalization of some of the skills and insights of design community(Attribute). (2005년 2월 21일자)

ST12 b: ...people (Sensor) obviously think (Mental Process) that you have the opportunity for revitalization of some of the skills and insights

of design community (Phenomenon).

TT12: 과학자들의 기술과 지식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Token) 그것(Value) 뿐(Circumstance) 이다. (Relational Process)

식민 담론에서 지배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배자 자신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추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ST11은 미국 정부의 핵 관통탄 개발을 위한 예산 계획을 기술하는데, 이 부분의 문법 구조는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축소한다. “미국이 새로운 지하 핵 관통탄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행위성은 후치되어 프로세스에 뒤의 ‘목표’Goal로 배경화된다. 동시에 행위자의 자리에는 “2006년 예산” the 2006 budget 라는 어휘가 위치하여 강조된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 공격 계획은 문장 구조상 축소되고 가려진다.

ST12도 미국의 무기 개발과 무기 기술자들을 훈련하여 핵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기술한다. 우선 ST12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계획을 “그 기술과 직관을 다시 재생시킬 기회”the opportunity for revitalization of some of the skills and insights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축소한다. ST12a 부분은 문법적으로, “이전의 그 기술과 직관을 다시 재생시킬 기회”라는 부분이 ‘귀속성’Attribute으로 배경화된다. 더 나아가 ST12b와 같이, 이 문장에서 where가 이끄는 부분은 주절과 종속절이 결합된 복문으로 구조화되어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복문에서 “중요한 정보는 주절에 위치”하여 강조된다(Fairclough 132). ST12b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한다” people obviously think가 주절로 구성되어 있고, 주절의 문장 속에는 “사람들” people이 ‘감지자’Senser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무기 개발 계획이 “일반 국민” people 의 공적인 바람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현은 번역과정에서 변형된다. TT11은 새로운 무기개발을 시작하는 미국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시킨다. TT11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은 ‘행위자’Actor로 앞에 위치하여 강조된다. 동시에 ‘미국’을 “개발하다”라는 물질 프로세스와 함께 구성하여서⁹⁾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사 개발하는 주체로 재현된

9) TT11에서 무생물 주어인 “미국”이 행위자가 되어서 “개발할...”이라는 물질 프로세스를 동반하는 문장 구성은 한국어 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문장에

다. 이와 유사하게, TT12는 ST12의 문법 구조를 단문으로 축소하고 내용도 바꾼다. TT12는 “과학자들의 기술과 지식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귀속자’Carrier로 구조화하여서, 문장 앞에 둔다. 게다가, ST12의 종속절을 원래대로 번역하면, “사람들”people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TT12는 “사람들”people을 생략하여서 무기 개발을 정당화했던 ST를 논리를 무화한다.

다음 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두 텍스트의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ST13: They (the North)(Actor) 've already received (Material Process) the electricity pledge, additional food aid and rapidly widening cooperation in a variety spheres(Goal) from South Korea. (Circumstance) (2005년 8월 29일자)

TT13: 이미 남한은(Sayer) 전력 공급과 추가 식량지원,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Verbiage) 약속했다(Verbal Process).

ST14: ...his country's growing closeness to China(Carrier) is (Relational Process) one reason for President Roh's decision to declare a new geographical role for South Korea in the region (Attribute). (2005년 6월 20일자)

TT14: 노대통령이(Actor)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를 선언한 사실도 (Circumstance) 한국과 중국을 가깝게 하는데(Goal) 기여했다... (Material Process).

식민 담론 속에서 “피 지배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소극성”이다(Said 1978: 529). 위 ST에는 한국을 소극적인 약자로 호명한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 정부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상생하는 것 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방법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북한을 설득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믿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계획을 지원하는 정책”

서 무생물 주어가 행위 주체로서 행위와 연관되는 물질적 프로세스를 동반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비문법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생물을 주체로 쓰는 한국어 문장은 사실상 드물지 않다(이창수: 2006: 156-159). 그러므로 TT11에서 미국은 Actor로 간주될 수 있다.

이라고 간주했다(Yoo 19-20).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시각은 ST13에서 한국의 입장을 낮추어 재현하는 문법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 ST13에서는 한국을 ‘배경’Circumstance 속으로 후치시켜서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한국의 행위성이 축소된다. 이와 유사하게, ST14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낮추어 재현한다. 당시 한국의 노 대통령은 2005년 3월 국정연설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설 하였다. ST14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귀속성’Attribute의 자리에 후치하면서 존재를 나타내는 관계적 프로세스인 be 동사 다음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의 연설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T는 ST에서 부여된 소극적인 재현을 거부한다. ST13을 그대로 번역하면 북한을 지칭하는 “그들”they이 행위자로 나타나야한다. 그런데 TT13은 한국을 ‘화자’Sayer로 문장의 앞에 위치시켜서 경제적 원조를 주관하는 한국의 행동을 능동적인 것으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한국을 소극적인 지배자로 재현했던 ST13의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는 삭제되고 오히려 전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한국의 긍정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TT14에서도 ST14의 식민 담론은 전복된다. ST14를 원래대로 번역하면 노 대통령President Roh은 귀속성Attribute 속에 포함되어야한다. 그런데 TT14에서 노대통령은 물질 프로세스인 “기여하다”contribute 라는 동사를 동반한 능동적인 ‘행위자’로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대통령을 긍정적인 참여자로 재현한다. 식민 담론에서 피 지배자란 “타인에 의해 제기되고 이해되고 정의되고 기능하는 존재”(Said 1978: 179)이다. 그러나 위의 번역문들은 한국이 식민 담론에서의 피 지배자의 존재 조건을 초월하는 존재로 부각시킨다. 이데올로기적 전복성은 문맥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4.3. 문맥적 측면

문맥적인 의미textual meaning는 문장 속 메시지의 짜임을 나타낸다. 앞서 보았듯이, 영어의 문장은 이끔부와 딸림부로 구성된다. 이끔부는 절의 주제를 나타내며, “주어진 맥락 안에서 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는지 말해준다”(Halliday and Matthisen 64). 저자가 “어떤 문장요소를 이끔

부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바뀔 수 있다”(Thompson 2004: 143). 즉, 저자나 화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중요시하는 부분을 이끔부로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와 유사하다.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우므로, 저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문장의 앞부분에 전경화시킬 수 있다 (김미라 2007: 228-229). 김미라는 한국어가 영어의 이끔부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에 대해, “절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며, 한 문장에서 여러 개의 이끔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주장한다(2012: 62).¹⁰⁾

이 부분에서는 주로 문맥적인 의미의 중심 요소인 주제화를 다룬다. 주제화는 영어 절에서 화자나 저자가 메시지의 토픽을 앞자리에 두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통해 ST의 미국 중심적인 식민 담론이 TT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탐색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동질화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 위계관계가 존재”한다 (Cheyfitz 5). 그런데 다음에서는 이러한 위계관계가 절 이끔부 구성에 따라 다르게 재현된다.

ST15:

Or Washington would offer incentives- such as energy aid and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State department list of terrorist states- in return for a North Korean compromise on aspects of the finance sanctions, to be negotiated. (2006년 10월 16일자)

theme	rheme
-------	-------

TT15:

또는 금융제재의 몇몇조항(추후협상)에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정부가 유인책(예컨대 에너지 원조, 그

10) 김미라(2007/2012)는 한국어 이끔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어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서 한국어 문장 전체의 약 75 퍼센트를 차지하며, 주어를 포함하지 않고 배경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상황을 설정하는 이끔부가 나머지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끔부와 특별 이끔부로 나뉘며, 주어를 포함하는 이끔부는 일반 이끔부, 나머지는 특별 이끔부로 번역한다.

리고 미 국무부 테러 국가 명단에
서 제외)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theme	rheme
-------	-------

ST16:

... there were already “plenty of incentives” in a U.S. proposal that’s
been on the table for a year. (2005년 6월 20일
자)

theme	rheme
-------	-------

TT16:

... 미국이 1년 전에 내놓은 제안에는 이미 “많은 유인책”이 들어있다.

theme	rheme
-------	-------

위 ST는 미국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끔부에 위치시켜서 강조하고, 반면, 부정적인 경향을 끌림부로 배경화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을 우월한 존재로 격상시킨다. ST15에서는 부시 행정부를 의미하는 “Washington”이 이끔부로 전경화됨으로써, 북한을 원조하는 주체가 미국임을 강조한다. ST16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조가 문맥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부각된다. 체계적 기능 문법에 의하면, 영어의 ‘THERE BE’ 구문의 경우, “존재를 나타내는 ‘there’는 이끔부에 위치하지만 사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Halliday and Mattieson 257). 이 경우, 문장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토픽이 되는 부분은 끌림부의 내용이다 (Thompson 2004:161). 그러므로 ST16의 ‘THERE BE’ 구조의 토픽은 “미국이 이미 많은 장려책을 주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많은 장려책”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ST16은 미국을 수혜를 많이 베푸는 나라로 긍정적으로 재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재현은 번역 과정에서 전도된다. TT15에서 “또는 금융제재의 몇몇 조항(추후협상)에” 라는 부사구가 특별 이끔부로 변형된다. 이 구조는 금융제재를 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TT16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보조를 나타내는 내용이 끌림부로 배경화되면서, ST16에 있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재현은 약화된다.

한편, 다음 경우 두 텍스트는 한국의 대통령과 외교정책을 다르게 재현한다.

ST17: (2005년 6월 20일자)

In a now notorious speech this spring, Roh announced that it was time for South to start working as a “balancer” in North east Asia.

theme	rheme
-------	-------

TT17:

노대통령은 올 봄 연설에서 지금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theme	rheme
-------	-------

ST18: (2007년 8월 17일자)

If there’s one thing that can help the chances of their beleaguered party, it’s a high-profile summit with the North.

theme	rheme
-------	-------

TT18:

노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지도가 낮은 여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세계적 인 이목이 집중되는 남북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theme	rheme
-------	-------

ST17은 “동북 지역에서의 한국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노대통령의 연설을 “악명 높은” notorious 것이라 규정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ST17은 이끔부에 “지금 올 봄의 악명 높은 연설에서”in a now notorious speech this spring 부분을 전경화하여, ST17은 연설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킨다. 또한 ST18의 “THERE BE” 구문도 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재현한다. ST18은 끌림부의 “one thing”이하 부분을 토픽으로 구조화하여서, “한 가지”one thing이라는 어휘를 강조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한가지 밖에는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한국 정치인들을 폄하한다.

그러나 TT는 이러한 구문 구조를 변형한다. TT17은 “노대통령”을 이끔부로 전경화해서 오히려 노 대통령을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재현한다. 동시에 TT17은 원문에 있던 “악명높은”이라는 어휘를 삭제해서 ST에 있던 노대통령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삭제한다. 마찬가지로 TT18도 노 대통령을 이끔부에 전경화하는 동시에 “한 가지”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노 대통령을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재현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ST의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 의미는 체계적으로 미국 정부와 정책을 우월한 것으로 재현한 반면, 한국은 열등한 것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자아와 타자로 이분화하는 식민주의적인 틀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미국은 선하고, 능동적이며, 이성적인 ‘자아’로 ‘호명’된다. 반면 한국은 악하고, 수동적이며, 야만적인 타자로 ‘호명’되어, “미성숙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로”(Niranjana 11) 재현된다.

이와 반대로 TT는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 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형시켜서 자아-타자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이분법적인 식민 담론 구조를 전복하고 해체한다. ST에서는 미국이 매우 긍정적으로 재현되는 반면, TT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재현을 훼손한다. 반대로, ST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반면, TT는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를 약화시키거나 무화한다. 동시에 TT는 한국을 독립적 정체성을 단언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면서 ST가 미국의 정체성을 우월한 ‘자아’로 ‘호명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해체한다. 이러한 대체구조는 미국의 식민주의적 외교방침에 반대 입장 이었던 한국의 당시 지배적 정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정치 문제를 다룬 뉴스위크 국제판과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드러나는 식민 담론의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8편의 뉴스위크 국제판과 한국어 번역본을 자료로, 두 기사의 식민 담론과 관련된 언어 구조를 분석하였다. ST에서 미국 중심의 식민 담론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TT의 언어적 변형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근 현대사에서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불

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였다. 두 텍스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T의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 특성은 이러한 권력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며, 미국을 우월한 ‘자아’로 재현하는 반면 한국을 열등하고 결점 있는 ‘타자’로 끊임없이 재현하는 미국의 식민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TT가 ST를 ‘자국화’하고 ‘다시 씀’으로써, 한국의 독립적 정체성을 단언하면서 ST의 식민 담론을 전복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대항 담론은 “문화적인 저항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Venuti 68) 조건을 가진다. 지배담론이 소수자나 후기 식민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변형되는 것은,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그들의 독립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것”이다(Tymoczko 35). 그런 점에서 TT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후기 식민주의적인 번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평적 담론 분석과 체계적 기능 문법이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비평적 담론 분석은 두 텍스트의 언어에 내재된 “왜곡된 재현이나 차별”(Fowler 5)을 가시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별된 언어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조작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관계가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계적 기능 문법은 주어진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텍스트에 내재된 세밀한 언어적 특성들을 알아내는데 유용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언어적인 특징을 어휘적, 문법적, 문맥적인 세 가지 측면으로 탐색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 적용된 비평적 담론 분석은 ST와 TT의 이데올로기적인 재현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이론적 바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담론 분석은 선택된 언어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정확한 조응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서로 다르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ST 저자와 번역가에 대한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인터뷰가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위크 한국판의 편집장과의 인터뷰가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나, 이것이 번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번역과정을 충분히 밝히기에는 무리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저자와 번역가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상정하는데 있어, 두 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양상이 충분히 탐색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각 텍스트들은 모든 정치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특수성에 적합한 조건을 탐색하면서, 상황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인 배경이나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과 같은 텍스트 외부적 요인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a) 「번역 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번역학 연구』 9(2):7-43.
- 강지혜 (2008b) 「번역에서의 인용문제: CNN.com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7-40.
- 김미라 (2012) 「환영 단편소설 번역에 있어 ‘이끔부(theme)’의 선택이 독자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서울: 동국대학교.
- 박종성 외 옮김(2003). 『탈식민주의 길잡이』, 서울: 한울. [J. Mcleod (2000) *Beginning Postcolonialism*, Manchester: MUP.
- 박홍규 옮김 (2009).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E. W. Said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New York].
- 이경원 옮김 (2001). 『탈 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B. Moore-Gilbert (1997)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Verso: London and New York].
- 이창수 (2012) 「비평담화분석을 위한 동사성 분석의 의미론적 모델 연구」, 『언어와 언어학』 56: 253-282.
- 이창수 (2006) 「영한 번역에서의 동사성 체계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 (1): 155-175.
- 이주리에 (2011) 「기사문 번역의 재 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번역학연구』 12(2): 157-183.
- 이주리에 (2012) 「한일 번역의 양태연구-신문 사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번역학 연구』 13(5): 275-196.
-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 Ashcroft B., G. Griffiths & H. Tiffin (1989)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London: Routledge.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tt, D., S. Spinks & C. Yallop (2003)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Sidney: Macquarie UP.
- Callinicos, A. (1976) *Althusser's Marxism*, London: Pluto.
- Cheyfits, E. (1997) *The Poetics of Imperialism: Translation and Colonization from the Tempest to Tarzan*,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New York: Longman.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Arnold.
- Fowler, R. (1996) 'On Critical Linguistics', In Caldas-Coulthard, Carmen Rosa and Coulthard Malcolm (Eds.) *Text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14.
- Flake, L. G. (2005) 'Sunshine or Moonshin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heir Impact upon the U.S.-DPRK Conundrum',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85-98.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Melbourne, and Auckland: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and C. M. I. M. Matthy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 New York: Arnold.
- Hatim, B. and Mason, I.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ng, J. (2004) 'Evaluation of South Korea in News Media Translation: A Critical Perspective', *Discourse and Cognition* 11(1):1-30.
- Kang, J.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 (2): 219-242.
- Kim, M. (2007) 'Using Systemic Functional Text Analysis for Translator

- Educ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223-246.
- Lee, S. B. (2008) 'The Impact of Translation on the Perceived Degree of an Actor's Kinesi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4(2): 141-161.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New York: Routledge.
- Munday, J. (2007) 'Translation and Ideology: A textual Approach', *The Translator* 13(2): 195-217.
- Niranjana, T. (1992) *Sit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 Robinson, D.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Richardson, J. E. (2007) *Analysing Newspapers: An Approach fro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aid, E. W.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Thompson, J. B. (1984) *Studies in the Theory of Ideology*,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 Thompson, G. (200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Tymoczko, M. (1999) 'Postcolonial writing and literary translation', In Susan Bassnett and Harish Trivedi (Ed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40.
- Van Dijk, T. A. (1996)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aldas-Coulthard, Carmen Rosa and Coulthard Malcolm (Eds.) *Text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4-106.
- Venuti, L. (1995)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dak, R. and R. Meyer (2001)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 Yoo, C. Y. (2005) 'Anti-American, Pro-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East Asia* 22(1): 18-32.

부록

ST- 뉴스위크 국제판 TT- 뉴스위크 한국판

부록1.

ST: A failure to communicate (ST10) Administration hawks raise the bar in talks over North Korea. (2004년 1월 12일자)

TT: 돌파구 찾지 못하는 북핵 2차 6자회담 (TT10) 6개국간 견해차 해소보다 차기 일정에만 관심...美 행정부내 압력도 걸림돌 [...]

부록 2.

ST: [...] So how should the Bush administration respond to that threat? (ST11) The 2006 budget calls for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new 'bunker busting' nukes of its own. [...] Everet Beckner, deputy head of 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told NEWSWEEK that there is little choice but to develop a new nuclear warhead. (ST12)"This is an area where people obviously think that you have the opportunity for revitalization of some of the skills and insights of design community," he says.[...] (2005년 2월 21일자)

TT: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부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TT11)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핵 관통탄을 개발할 계획 [...] 미국 국가핵안전국 (NNSA)의 에버렛 베크너 부국장은 새 핵탄두 개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TT12)"과학자들의 기술과 지식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

부록 3.

ST:[...]Owing to their long history of victimization by outsiders, South Koreans have often (ST4) bridled at their junior place in the alliance, [...] When asked about offering the North further incentives to return to six-party talks on the nuclear issue, Bush said (ST16) there were already "plenty of incentives" in a U.S. proposal that's been on the table for a year. [...] Washington basically expected the Koreans to (ST7)take note of the idea and (ST7)nod their approval. [...] Some observers say that (ST14)his country's growing closeness to China is one reason for President Roh's decision to declare a new geopolitical role for South Korea in the region. (ST17)In a now notorious speech this spring, Roh announced that it was time for the South to start working as a "balancer" in Northeast Asia. [...] (뉴스위크 국제판 2005년 6월 20일자)

TT: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한국은 한미 동맹에서 차지하는 열등한 위치에 종종(TT14) 화를 낸다. [...]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유인책을 추가로 쓸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부시는(TT16) 미국이 1년 전에 내놓은 제안에는 이미 “많은 유인책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그런 생각에(TT7) 동의하리라고 기대했다. [...] (TT14) 일부 관측통은 노 대통령이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역할을 선언한 사실도 한국과 중국을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한다.(TT17) 노 대통령은 올 봄 연설에서 지금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부록 4.

ST: [...] The North Koreans, in turn, gain plenty just by showing up. (ST13) They’ve already received the electricity pledge, additional food aid and rapidly widening cooperation in a variety of spheres from South Korea. [...] (2005년 8월 29일자)

TT: [...] 북한은 또 회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만 해도 소득이 많다.(TT13) 이미 남한은 전력 공급과 추가 식량 지원,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

부록 5.

ST: [...] Indeed, according to an un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 obtained by NEWSWEEK, during Kim Jong Il’s January trip to China, he reportedly told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hat "his regime might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the U.S. (ST1) crackdown on his financial dealings. [...] "Some experts say that the real target of America’s new financial (ST2) crackdown isn’t Pyongyang but Beijing, which is Kim Jong Il’s most important patron.[...] (2006년 4월 10일자)

TT: [...]“실제로 뉴스위크가 입수한 미국의 비(非)기밀 정부문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중 때 김정일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대화하던 중 미국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너무 심하게 (TT1) 탄압해 자신의 정부가 붕괴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최근 금융 (TT2) 탄압의 진짜 표적은 평양이 아니라, 김정일의 가장 중요한 후견인인 베이징이라는 분석도 있다. [...]

부록 6.

ST:[...]“The US continues to (ST3)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carefully assess the risk of holding any North Korea-related accounts.”[...] (ST15) Or Washington would offer incentives-such as energy aid and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State Department list of terrorist states- in return for a North Korean compromise on aspects of the financial sanctions, to be negotiated. (2006년 10월 16일자)

TT: 미국은 계속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계좌 보유에 따르는 위협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TT3) 종용한다.[...] (TT15) 또는 금융제재의 몇몇 조항(추후협상)에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정부가 유인책(예컨대 에너지 원조, 그리고 미 국무부 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 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부록 7.

ST: South Korea's (ST5) Resistance: A 'Parallel Universe' Blue House progressives (ST6) challenge White House hawks.(2006년 10월 30일자)

TT: 한국과 미국 시각은 '평행선 달리기' 청와대 안보분야 진보 인사들, 백악관 네오콘 매파와(TT6) 정반대 세계관

부록 8.

ST: [...] Surely it can't be a bad thing fo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to get together for a(ST8) chat. [...] Small wonder.(ST18) If there's one thing that can help the chances of their beleaguered party, it's a high-profile summit with the North. [...] Political(ST9)junkies coined the phrase "North Wind" to describe the political benefits of inter-Korean diplomacy.[...](2007년 8월 17일자)

TT: 남북한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TT8) 대화하는 일이 절대로 나쁘지는 않다. (TT18) 노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지도가 낮은 여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 (TT9) 정치 논평가들이 남북한 관계증진이 가져다주는 정치적 이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북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였다.

[Abstract]

Subversion of Colonial Discourse through the Translation of *Newsweek*

Choi, Sung He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ranslation shifts of colonial discourse in the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and *Newsweek Korea* on North Korean political issues. Based on eight articles in both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and *Newsweek Korea*, this study identifies in detail linguistic features of colonial discourse in the two texts. It also investigates how the ideological power relations between America and South Korea are represented in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and how they are transformed in *Newsweek Korea* through linguistic manipulation. This study applies concepts and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functional grammar approaches, using the notion of ideology and representation presented by Althusser and Gramsci to explore power relations in the text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is adopted to show that translation can challenge the hegemonic representation of source texts. This study illustrates how representations of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are radically transformed or rewritten. The findings suggest that *Newsweek Korea* reveals questionable condition of U.S. hegemony, subverting the binary logic of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which ‘interpellates’ the U.S. as the superior “Self”, with Korea as the inferior “Other”. The findings suggest that *Newsweek Korea* reflects the dominant political perspective of South Korea, which runs counter to the U.S. policy.

▶ Key Words: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 *Newsweek Korea*, post colonial translat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최성희

고려대학교 영문과 강사

pauline7@korea.ac.kr

관심분야: 탈식민주의 번역, 비평적 담화 분석, 체계적 기능 문법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